

## 『삼국유사』 「홍법」편의 내용과 특징\*

이성운(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문요약

불교문화 관련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고 해서 ‘불교문화사료’로 보는 것은 『삼국유사』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삼국유사』는 문자 그대로 유사(遺事)이고 별이(別異)한 것을 교정한, 기 전체를 바탕으로 한 기사본말체에 가까운 준 역사서라고 하겠다. 『삼국유사』 홍법 편 의 여섯 조목은 불교의 수용과 국운의 융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불법의 흥성이 세간의 흥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으로 짜였다.

불교가 전래 되고 수용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였다고 일연은 분명하게 그 구조와 인식에서 밝히고 있다. 고구려의 불교공인도 그렇고, 백제 또한 불교의 수용이 상당히 수월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신라의 경우 법흥왕의 사신(捨身)

\* 이 논문은 2022년 4월 29일 한국불교학회 봄철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으로 흥법하고 박염축의 멸신(滅身)이라는 희생에 의지하여 비로소 신라에 불교가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이때부터 신라에는 어떤 집이나 예불을 드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게 되고 누구나 불도를 행하면 반드시 불법을 깨쳐 깨닫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불교의 흥법은 백성이 이롭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또 지나친 불교의 흥법이나 신봉은 오히려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편제의 구조와 인식의 설명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 『흥법』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삼국유사, 一然, 흥법, 삼국사기, 紀異, 불교공인, 別異

## - 목 차 -

- |                            |                             |
|----------------------------|-----------------------------|
| I. 서언: 유사 성격 재고            | III. 「흥법」편의 특징: 편제와 인식의 역사관 |
| II. 「흥법」편의 내용: 불법과 세간의 불가분 | IV. 결어: 불교 흥망의 요인           |

### I. 서언: 유사 성격 재고

『삼국유사』 「흥법」편의 내용과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논자는 『삼국유사』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나 그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되짚어보려고 한다. 이것은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의 경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기획 의도에 따라 그 의미와 성격의 재고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세기 후반 국존(國尊) 일연(1206~1289)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삼국유사』는 한국고대사나 불교사를 포함하여 한국문화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 고대 불교사의 체계는 그것에 의해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연 『삼국유사』에 실린 불교 관련 자료에 대한 가치는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거기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상을 애써 밝히고자도 하였다.<sup>1)</sup>

『삼국유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三國遺事』를 史書로 파악하는 견해,<sup>2)</sup> 『三國遺事』를 野史集으로 파악하는 견해,<sup>3)</sup> 『三國遺事』를 佛敎史書로 파악하는 견해<sup>4)</sup> 등이 있다. 이 논의들을 통해 보면 『三國遺事』의 성격은 ‘佛敎文化史類’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사는 불교의 교리나 불교의 원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 불교 자체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반면 ‘불교문화사’는 불교를 소재로 하거나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활동 전반을 서술해 나가는 불교문화의 역사라고 하겠다. 기이(紀異)편은 일반문화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단순히 일반문화사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사로서의 여타편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도 있다. 따라서 『三國遺事』는 佛敎文化史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인 佛敎文化史類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한편 불교계에서는 『삼국유사』의 편찬자 일연이 승려라는 신분에 의거해 『삼국유사』를 중국의 사대 고승전의 편목과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

---

1) 김문경(1976); 金相鉉(1976); 김상현(1997); 蔡尙植(1997); 안계현(1991); 金相永(1998); 金杜珍(2003).

2) 자유로운 형식의 사서류, 李基白(1976); 잡록적 사서, 金東旭(1969).

3) 李載浩(1982); 李乙煥(1975); 蘇在英(1974); 蘇在英(1974).

4) 閔泳奎(1973); 金煥泰(1974); 金文泰(1989), 74. 주5).

5) 金文泰, 「三國遺事의 體裁와 性格」, 『陶南學報』 11(도남학회, 1989), p.75. 주6).

이 보인다.<sup>6)</sup> 『삼국유사』에 중국의 삼대 고승전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하여 현존 『삼국유사』의 체제는 일연에 의해 육화된 독창적인 틀<sup>7)</sup>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또 체제 면으로 보면 『삼국유사』(5권)는 그 140년 전에 간행된 『三國史記』(50권, 1145년)하고는 크게 변별된다. 또 70년 전에 간행된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현존 2권, 1215년)과도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저자가 같은 승려 신분이고, 그 형식이 고승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sup>8)</sup> 이것은 찬술자 일연이 단지 중국의 삼대 『고승전』과 『해동고승전』을 의식하고 기술했다는 종래의 관점에서 크게 비켜나 있다고 보인다.<sup>9)</sup> 하지만 일연은 ‘정사(正史) 『삼국사기』에서 빠뜨린 ‘적나라한 인간’, ‘벌거숭이 인간’, ‘떨떨 살아 뛰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불교적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당시의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게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그간 『삼국유사』의 성격은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졌다. 최남선은 ‘시방 新聞의 雜報나 事件의 漫錄과 같은 것을 모은 서류로 보면 可할 것<sup>11)</sup>’이라거나 ‘一然禪師의 80平生의 정진이 이 한 책의 著作에 集注되어 있으며, 미상불 『三國遺事』 全篇에서 興法과 義解가 가장 잘 다듬어진 篇

6) 고영섭, 『『삼국유사』 「홍법」과 「탐상」의 성격과 특징』,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5 (경주: 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p.9.

7) 고영섭, 「삼국유사의 불교철학적 접근」, 『한국문화연구』 4집(서울: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p.202.

8) 高翊晉, 「三國遺事 撰述攷」, 『한국찬술불서의 연구』(서울: 민족사, 1987), p.304. 조목의 이름이나 체제가 중국의 삼대 고승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여타의 고승전들과 다른 독창적 형식을 『三國遺事』는 갖추고 있다. 그것이 『삼국유사』의 특징이다.

9) 고영섭, 『『삼국유사』 「홍법」과 「탐상」의 성격과 특징』, p.202.

10) 고영섭, 『『삼국유사』 「홍법」과 「탐상」의 성격과 특징』, p.203.

11) 崔南善, 「三國遺事解題」, 『啟明』 18(1941), pp.8-9.

章들이며, 「興法」 이하 「孝善」에 이르기까지의 下半部는 그대로 삼국의 佛敎史로 보아 좋을 만큼이다<sup>12)</sup>이라거나 ‘제1편의 「王曆」表로부터 제9의 「孝善」편에 이르기까지 그 內容의 編次 構成이 整然한 佛敎史로서의 體를 갖추고 있다<sup>13)</sup>’는 것들이다.

이렇듯이 다양한 성격과 관점은 어찌면 지나칠 정도로 추상적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삼국유사』는 최남선이 설명하고 있듯이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롯하여 빠뜨린 기록이나 잘못 기록되었거나 달라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上은 檀君王儉의 朝鮮肇國으로부터 箕·衛의 迭替와 貊韓의 消長과 乃至 栗散諸部の 興廢한 자취까지 古傳秘笈의 徵考할 수 있는 것을 두루 括羅하고 三國期에 入하여는 金侍中의 本史로부터 所傳이 別異하거나 또 故意의 刪削을 입은 듯한 者의 遵故 又等流的 補述을 試하고 兼하여 三國本史에서 거의 顧採되지 아니한 釋敎弘通의 事實을 掇拾하기에 主力을 注하니 作者의 意가 金氏本史의 獨斷的 註誤를 訂正하고 三國故事의 全般上 偏頗를 匡救함에 있음을 얼른 看取할 것이요.”<sup>14)</sup>

최남선이 정리하고 있듯이 삼국 이전의 우리 민족의 역사, 곧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전승, 산삭(刪削)된 불교의 흥통(弘

12) 閔泳圭, 「三國遺事」, 『韓國의 古典百選』, 『신동아』1월호별책부록(서울:동아일보사, 1969), pp.86~88.

13) 金煥泰, 「三國遺事の 體裁와 그 性格」, 『동국대학교논문집』 13(서울: 동국대학교, 1974), p.408.

14) 최남선, 「三國遺事解題」, 『新訂三國遺事』(서울: 민중서관, 1946/1971), pp.1~2.

通) 등 『삼국사기』 편찬자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기사가 많다고 해서 『삼국유사』를 ‘불교문화사료’로 한정하는 것도 민족문화의 대백과사전이라고<sup>15)</sup> 정의할 수 있는 『삼국유사』의 격을 오히려 저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국유사』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폈다. 큰 틀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논자는 『삼국유사』의 다양한 정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삼국유사』는 ‘유사(遺事)’를 정리한 것이고, ‘별이(別異)’한 것을 수정한 것이며, 부족한 것을 ‘보족(補足)’한 것일 뿐이다. 그 편찬 과정에 의도적으로 빠뜨렸을 것으로 보이는 불교 관련 기사가 많을 뿐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가 다양한 사료를 참조하였지만, 그 기준은 『삼국사기』이므로 『삼국사기』의 기사와 다른 점을 일연은 ‘본기(本紀)’와 ‘연표(年表)’를 더해 ‘왕력(王曆)’이라는 도표로 정리하는 기지를 보여주고 있다. 법흥왕 관련 조항만 봐도 그 의도는 더욱 분명히 보인다.

『삼국사기』 본기 법흥왕조는 즉위년(514)에서 서거년(540)까지의 기사 가운데 불교가 공인된 왕 12년(528)에는 관련 기사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연은 이 가운데 『삼국유사』 왕력편 법흥왕조에 다음과 같이 법흥왕의 왕력을 적고 있다.

“법흥왕 이름은 原宗이요 성은 김씨니 「冊府元龜」에는 성은 募씨요 이름은 秦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智訂이요 어머니는 영제부인이다. 법흥은 시호로서 시호가 이때부터 처음 생겼다. 갑오년에 왕위에 올라 2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왕릉은 哀公寺 북쪽에 있다. 왕비는 파도부인이니 중이 된 후의 이름은 法流로서 영흥사에 살았다.

---

15) 고영섭, 「『三國遺事』 「興法」篇 ‘阿道基羅’條의 고찰」,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5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p.251.

처음으로 율령을 시행하고 십재일을 시행하여 살생을 금하였고 사람들에게 도첩을 주어 승려가 되게 하였다. 建元: 이 해에 처음 설정하여 연호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sup>16)</sup>

『삼국유사』(이하 遺事) 「왕력」편의 법흥왕 조와 『삼국사기』(이하 本史) 「본기(本紀)」 법흥왕 조의 내용을 비교하면 유사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첫째 유사에는 이름이 ‘秦’으로 나오고 본사에는 泰로 나옴. 둘째 모친을 본사는 ‘延帝夫人’, 유사는 ‘迎帝夫人’이라고 하고 있음. 셋째 법흥이라는 ‘시호’를 유사는 법흥왕 때 처음 썼다고 하지만 본사에는 지증마립간 때라고 하고 있음. 넷째 본사는 부인을 保刀夫人이라 하고 유사는 巴刀夫人이라 하고 있음. 다섯째 왕비가 출가하여 法流라는 법명을 받고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하나 본사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음. 여섯째 본사는 왕 16년에 단순히 살생을 금하라는 분부를 내렸다고 하나 유사에는 ‘십재일에’ 살생을 금하라는 분부를 내렸다고 하여 살생을 금한 ‘때’를 분명히 적시함.

대략 6곳의 본사 내용을 일연은 정정하고 있다. 또 왕비의 출가에 관해 ‘유사(遺事)’는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것들을 보완의 측면에서 편찬하였다는 것은 재론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는 ‘제목의 유사’이고 ‘본기’와 ‘연표’의 ‘왕력’편을 새로 제작한 것이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기이(紀異)’로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유사’, ‘왕력’, ‘기이’는 『삼국유사』의 성격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이(紀

---

16) 일연·이상호 역,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서울: 까치글방, 1999/2004), pp.38-39.

異)’에 대해 ‘神異를 기록한다’<sup>17)</sup>는 뜻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이’는 ‘本紀와 다른 기록’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다른 기록은 신이(神異)한 ‘괴력난신’이라고 보이는 것이 많아 배제하려고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sup>18)</sup>

이렇듯이 『三國遺事』는 전반의 ‘紀異篇’과 후반의 ‘餘他篇’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三國遺事』는 과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sup>19)</sup>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유사(遺事)’와 ‘기이(紀異)’를 전하는 것이 편찬 목적이자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논자는 일연이 『삼국사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遺事)나 기이(紀異)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은 우리의 고대 정치 문화를 살려낸 탁월한 공로라고 생각한다. 법흥왕의 왕력편에는 그 연도가 나오지 않지만 『삼국사기』의 불교공인 연도 ‘528년’을 일연은 ‘527년 정미년’이라고 바로 잡고 있다. 이렇듯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삼국 이전의 역사와 편찬 당대까지의,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었던 역사문화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준 최대의 공로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유사』를 지나치게 불교의 승전과 비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일연이 승전을 인용하고, 일부 승려들의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듯한 ‘편목(신주와 같은)’이 있다고 해서 일연이 승전을 편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전(僧傳)에서 보이는 편목인 「홍법」 편

---

17) 李基白,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 上(서울: 創作과批評社, 1976), p.119.

18) 金文泰, 「三國遺事の 體裁와 性格」, 『陶南學報』 11(도남학회, 1989), p.76.

19) 金文泰, 앞의 논문, p.73.

도 승려들의 개인적 기록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내용을 중심으로 편목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 II. 「홍법」편의 내용: 불법과 세간의 불가분

「삼국유사」는 다섯 권의 책자에 수집 정리한 전체 기사를 왕력(王曆)·기이(紀異)·홍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의 아홉 편으로 대분류하여 편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집중해서 읽어봐야 할 편목은 「홍법」편이다. 일연은 ‘유사’와 ‘기이’를 서사하여 그것을 해당 편목에 배치함으로써 그가 추구한 유사가 완성되었다. 이제 일연이 편찬한 홍법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려고 한다. 유사 「홍법」편에는 ‘순도조려’·‘난타벽제’·‘아도기라’의, 삼국의 불법 수용과 관련된 기사와 ‘원종홍법·염축멸신’·‘법왕금살’·‘보장봉노·보덕이운’의 6조목이 들어 있다. 그렇지만 조선 중종 임신년에 간행된 정덕본 홍법편의 마지막 조목이 ‘동경 홍륜사 금당십성’의 제목기사가 있다는 설에 의거하여 ‘금당십성’ 기사를 「홍법」편으로 배치하는 논문이나 역주본도 적지 않다.<sup>20)</sup> 하나 논자의 생각으로는 「홍법」의 주제와 주체 등으로 볼 때 ‘동경 홍륜사 금당십성’조목은 「탑상」편에 편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홍법」편 6조목은 불법의 수용과 불법의 흥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불법이 수용되어 국운이 융성해야 진정한 ‘홍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불법

---

20) 고영섭, 『「삼국유사」 「홍법」과 「탑상」의 성격과 특징』, pp.6-7. ‘동경홍륜사 금당십성’조목을 홍법편으로 분류하여 역해하고 있는 역본으로는 이민수 역, 이상호 역, 이범교 역 등이 있고, 최남선 역 등은 탑상 편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용의 역사를 국운과 관련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법을 일으켰지만 나라가 폐망의 길을 걸었거나 또 불법을 제대로 받들지 않아 나라가 폐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일연은 「홍법」편에 담아놓고 있다. 일연의 편찬 철학이 이쯤에서 올바르게 드러나고 있다.

## 1. 불법의 수용과 국운의 응성

### 1) 고구려의 불교 수용: '順道肇麗'

“「고려본기」의 기록에는 소수림왕 즉위 2년 임신년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고구려에 보냈다고 하며, 또 4년 갑술년(374년)에 아도가 동진에서 왔으며, 이듬해 을해년(375) 2월에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물게 하고, 이불란사를 세워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고려불법의 시초이다.”

위 기사 외에 일연은 임신년을 동진 함안 효무제 즉위한 해라는 것을 먼저 적고 있고, 기사 아래 평론과 찬탄을 부가하고 있다. 일연의 평론을 읽어 보자.

“승전에는 순도와 아도가 위나라에서 왔다고 했으나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전진에서 왔다. 또 초문사는 지금의 홍국사이며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복사라고 하는데, 이 또한 틀렸다. 살펴보면, 고려의 도읍은 안시성, 다른 이름은 안정홀인데 요수의 북쪽에 있었다. 요수의 다른 이름은 압록이다.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하는데, 도읍지인 송도에 있는 홍국사의 이름이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sup>21)</sup>

---

21)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順道肇麗 條.

## 2) 백제의 불교 수용: 難陀關濟

“「백제본기」의 기록에는 제15대 침류왕이 왕위에 오른 갑신년(384)에 서역의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머물게 하고 예로써 공경했다. 이듬해 을유년(385)에 새로 도읍한 한산주에 절을 짓고 승려 10인을 출가시켜 머물게 했다. 이것이 백제 불교의 시초이다. 또 아신왕이 왕위에 오른 태원 17년(392) 2월에 왕명을 내려 불교를 숭상하여 믿고 복을 구하라고 했다.”

일연은 승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만 별다른 평론은 부가하지 않고 있다. 찬시를 읽어 보도록 하자.

“하늘의 조화는 옛날부터 아득한 것  
대체로 잔재주로 숨씨 부리기는 어려우리.  
어른들은 스스로 터득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옆 사람을 끌어당겨 눈으로 보게 하네.”<sup>22)</sup>

고구려에는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와 불상을 보내 고구려에서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불교의 시초가 일어나게 된 데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 환도성을 함락시키는 등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던 전연(前燕, 360~370)은 모용위(慕容暉) 때 전진왕 부견에 의해 멸망되었다. 이때 고구려는 국내로 망명해온 전연의 태전 모용평을 붙잡아 부견에게 압송함으로써 호의를 표했다. 모용평은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부견과 싸우다가 참패한 주장이었다. 모용평의 압송은 모용복의 옛 원한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파죽지세로 동남하 하는 전진의 세력을 외교적으로 무마하려

---

22)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難陀關濟 條.

는 저의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북중국의 새로운 패자가 된 부견은 동남의 무시하지 못할 존재인 고구려에 호의로서 불교를 전해주었다.<sup>23)</sup>

하지만 백제의 불교 초전에 대해서는 일연도 여타의 기록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역의 전법승이 홀연히 찾아왔으며 환대하였다고 적고 있다. 전후의 맥락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라난타는 동진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온 한 사람의 외국 승려에 불과하다. 국가적인 사절도 아닌 한 사람의 거무스레한 외국 승려가 들어 온 것을 한 나라의 왕이 몸소 교외에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궁중에 있게 하고 예경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 왕이 불교를 갈망하고 불법이 국가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sup>24)</sup> 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백제의 불교 수용에 대한 다음의 견해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다음 기사를 읽어 보자.

“백제의 불교 수용은 고구려의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간첩들은 쉴 새 없이 고구려 땅을 드나들면서 동정을 살폈다. 고구려에서 불교를 공식 수용하여 절을 짓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백제의 지배 세력은 질투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을 것이다. 이후 384년에 사신을 남조의 동진에 보냈다. 고구려와 전진이 서로 교류를 돈독히 하면서 밀착하고 있을 때였다. 한편 동진은 전진에 맞서 산둥반도 아래 지역과 양자강 일대를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 효무제는 백제에서 불교 수용의 의사를 보이자 망설이지 않고 인도의

---

2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사 고증세편』(서울: 조계종출판사, 2004), p.24.

24) 김영태, 앞의 책, p.38.

승려 마라난타를 보냈다. 전진과 경쟁하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마라난타를 두고 『해동고승전』에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인연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면 아마 그가 백제로 가는 길을 자원했을 것이다. 마라난타가 바다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오자 침류왕은 교외로 나가 맞이했으며 궁중에 모시고 공경히 공양했다.”<sup>25)</sup>

위의 기사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불교 수용에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아도기라’조목은 신라의 불교 전래 자료가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를 수집한 일연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차분히 그 내용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 3) 신라의 불교 전래와 수용: 阿道基羅

아도가 신라 불교의 기초를 다졌다고 보는 일연의 「홍법」편 ‘아도기라’조목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아도본비」의 기사를 제시하며, 일연은 상호 차이 나는 것을 평설하고 있다. 「신라본기」 법흥왕 15년 조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기사는 눌지왕과 비처왕 때의 두 기사로 나뉘진다.

“제19대 눌지왕 시대(417~458)에 사문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오니 그 고을 사람 모례가 집안에 굴을 파고 방을 만들어 편안히 모셨다. 이때 양 나라에서 사신을 시켜 의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임금과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쓰는 곳을 몰랐다. 그래서 사람들

---

25) 이이화,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사』(서울: 불광출판사, 2018), pp.46~47.

시켜 향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 나라에 두루 묻게 했다. 묵호자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우면 향기가 매우 강하게 풍기는데 이는 정성을 신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신성 으로서는 삼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르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신령스러운 감응이 있습니다.’ 이때 왕녀가 병이 위중하여 묵호자를 불러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나았다. 왕이 기뻐서 예물을 후하게 주었다. 얼마 후 그가 간 곳을 몰랐다.”<sup>26)</sup>

다음 기사는 21대 비처왕 때의 기사이다.

“제21대 비처왕 때 아도화상(我道和尚)이 시종드는 사람 세 명과 함께 또한 모례의 집에 왔는데 모습이 묵호자와 비슷했다. 이곳에서 몇 해를 지내다가 병도 없이 생애를 마쳤으나 그의 시종 세 명은 머물러 살면서 불경과 계율을 강독하니 이따금 믿는 사람이 있었다.”<sup>27)</sup>

이어서 「아도본비」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조’에 의하면 「아도본비」는 김대문의 『계림잡전』에 기록된 글에 의거하나, 한나마 김용행이 지은 아도화상비(我道和尚碑)와 기록이 다르다고 하고 있다.<sup>28)</sup>

“아도(我道)는 고구려 사람으로 어머니는 고도령이다. 정시 연간

26)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阿道基羅 條.

27)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阿道基羅 條.

28) 『三國史記』 「신라본기」 법흥왕 15년조.

(240~248) 조위 사람 아굴마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고도령과 사통하고 돌아갔다. 이로 인해 임신하게 되어 아도가 태어나 다섯 살이 되자 그의 어머니가 출가하게 했다. 아도의 나이 16세에 위나라로 가서 아굴마를 뵈고 현창 화상 문하로 들어가서 불법을 배웠다. 19세가 되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와 문안을 드리니 어머니가 '이 나라(신라)는 아직 불법을 모르나, 3천여 개월 후에 계림에 거룩한 임금이 나와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곳 서울 안에는 일곱 곳의 절터가 있다. 천경림, 삼천기, 용궁남쪽, 용궁북쪽, 사천미, 신유림, 서청전이 그곳이다. 모두 석가모니 이전의 절터로서 불법이 길이 전해질 곳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불교를 전파하여 드날리면 당연히 불교의 개조가 될 것이다.' 아도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계림으로 가서 왕성의 서쪽 마을에 머무르니, 지금의 입장사로 이때가 미추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 계미(263)년이었다. 아도가 대궐로 들어가 불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세간에서는 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꺼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자까지 있었다. 이에 속림(선산군)에 있는 모례(록)의 집으로 도망하여 숨었다. 미추왕 3년에 성국 공주가 병이 들어 무당과 의원에게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 사람을 보내어 의원을 구하였다. 아도가 급히 대궐로 들어가 그 병을 낮게 해주었다.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소원을 물으니 아도가 '소승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천경림에 절을 짓고 불교를 크게 일으켜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공사를 일으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풍속이 절박하고 검소해서 띠풀을 엮어 지붕을 이어 거기에 머무르면서 강연하니, 이따금 천화(天花)가 땅에 내렸다. 그 절을 흥륜사라 했다. 모록의 누이동생의 이름이 사씨인데, 법사에게 귀의하여 여승이 되었다. 역시 삼천기에 절을 짓고 거처했는데 절 이름은 영흥사이다. 얼마 후 미추왕이 세상

을 떠남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 하니 법사가 모록의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무덤을 만든 후 문을 닫아걸고 자진하여 마침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교도 또한 없어져 버렸다. 23대가 되는 법흥대왕이 소랑 천감 13년 갑오(514)년에 왕위에 올랐다. 곧 불교를 일으키니 미추왕 계미(263)년부터 252년이 된다. 고도령이 말한 3천여 개월이 들어맞았다고 할 것이다.”<sup>29)</sup>

일연은 이 「신라본기」와 「아도본비」에 실린 기사들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미추왕대(262~283), 눌지왕대(417~457), 비처왕대(479~499), 법흥왕 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등장인물도 아도(我道)·아도(阿道)·아두(阿頭)·묵호자(墨胡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연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 형상을 지목하는 이름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연은 아도와 묵호자는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5세기 중반까지 활동하고 있는 담시를, 일연은 아도·묵호·난타 중 한 사람이 담시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료로 최치원에 「지증대사탑비문」의 ‘고구려 불교의 초전자 담시(曇始)가 처음으로 왔으며 맥의 지방 춘천에 와서 불교를 전파하였다고 전해주고 있는데’<sup>30)</sup>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일연의 추정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사한 사건이 착종된 듯한 ‘아도기라’조목의 기사를 신라불교의 初傳(미추왕대의 我道가 신라에 음), 再傳(눌지왕 때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으로 음), 三傳(비처왕 때 阿道和尚이 시자 3인과 함께 모례의 집으로 음), 四傳

29)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阿道基羅 條.

30)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서울: 가산문고, 1993/1994), p.298.

(법흥왕 때 阿道가 일선군 모례의 집으로 옮)의 기록으로 살펴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sup>31)</sup> 이는 공인 이전에 신라 사회에 불교가 널리 신앙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이와 같은 다양한 신라 불교의 기원과 관련된 설화는 신라 불교 기원에 그 정통성을 새롭게 현창하고자 했던 사회적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칠처가람설’이나 ‘전불성지설’로서 왕경(王京)의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요청되었다고<sup>33)</sup>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불법의 흥성과 세간의 흥성

『삼국유사』 「홍법」편의 나머지 항목은 불법이 흥성하게 일어나게 된 이야기와 불법이 흥성하지 못해 나라가 기울어진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고 있다. 불법을 흥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삼국유사』 「홍법」 편목 이하 여러 기사도 해당된다. 불법을 흥성하게 하는 것은 탑상이나 의해나 신주나 감통이나 피은의 그 기사들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법이라는 편목에서 ‘홍법’과 관련한 조목들은 국왕이나 국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불법을 흥성하게 하거나 불법이 쇠퇴하게 한 사례가 「홍법」 편목에 함께 편제된 것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곧 불법의 흥성이 세간의 흥성과 비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

31) 고영섭, 『『三國遺事』 「興法」篇 ‘阿道基羅’條의 고찰』, pp.268-270.

32) 고영섭, 『『三國遺事』 「興法」篇 ‘阿道基羅’條의 고찰』, p.274.

33) 배금란, 「논평문: 신라불교의 초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장대웅/역사에호가)」,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 한국불교학회, 2021), p.250.

## 1) 원종의 흥법과 염축의 멸신

「흥법」 편의 이 조목에 편목의 제목이 등장하고 있다. 흥법은 불법을 흥성하게 한다는 뜻인데 그 주체가 원종이다. 물론 흥법을 위해 염축이 멸신을 하게 되었다는 인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차돈의 순교로 잘 알려진 기사이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법흥왕이 즉위한 지 14년 하급관리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몸을 희생했다. 소량 보통 8년 정미년(527)로 서천축의 달마대사가 금릉에 왔던 해이다. 이해에 낭지 법사가 영취산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설법을 열었으니, 불교가 흥하고 쇠퇴하는 것은 멀고 가깝고 간에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감응한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믿을 수 있다. 원화 연간(806~820) 남간사 승려 일념이 「축향분예불결사문」을 지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옛날 법흥대왕이 자극전에서 왕위에 올라 불법을 펴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하여 뜻을 펴지 못하였다. 대왕이 ‘과인은 덕이 없어 왕업을 크게 이어받았으나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잃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기쁨이 없었다. 바쁘게 정사를 보는 중에도 틈을 내어 불교에 뜻을 두었지만 누가 나와 함께 일을 할 것인가라며 탄식했다. 이때 박염축이 임금의 뜻을 알아차리고 나라를 위해 몸을 희생하고자 하였다. 거짓으로 임금의 말씀을 전한 죄로 자신을 형벌로 목을 베어 처벌하면 만백성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왕의 말씀을 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왕은 처음에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인 염축이 자신이 목숨을 버려 불법이 행해지면 대왕께서 평안하실 것이라고 하며 왕의 결심을 재촉하였다. 대왕은 일부러 위엄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위풍 있는 형구를 동서에 벌여놓고 서릿발 같은 병장기를 남북으로 늘이고 여러 신하를 불러 물었다. ‘경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에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재빨리 맹세하고 손으로 동서를 가리켰다. 왕이 사인을 불러 꾸짖으니 사인은 얼굴빛이 변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왕이 크게 노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니 관원들이 그를 묶어 관아로 끌고 갔다. 사인이 맹세하자 사형을 집행하는 자가 그의 목을 베니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하늘은 사방이 시꺼멓게 꺾꺾해지는 것이 석양에 어둠이 깔리듯 하고 온 천지의 땅은 진동하며 하늘에서 꽃비가 휘날리며 떨어져 내렸다. 대왕은 애통해하며 비통한 눈물이 곤룡포를 적시었고 재상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진땀이 머리에 쓴 관에서 흘렀다. ~ 마침내 북산 서쪽 골짜기에 장사지냈다. 대궐 사람들이 이를 슬퍼하며 좋은 땅을 잡아서 절을 세우고 자추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어떤 집이나 예불을 드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게 되고 누구나 불도를 행하면 반드시 불법을 깨닫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진흥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되는 갑자 544년에 대홍륜사를 세웠다. 태청(547~548) 초년에 양나라 사신 심호가 사리를 가져왔고 천가 6년(565)에 진나라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이 함께 불경을 받들고 오니 절들이 별처럼 벌려져 있었으며, 탑들은 기러기 행렬같이 늘어져 있었다. 법당을 세우고 범종도 달았다. 뛰어난 승려들은 서울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낳게 하는 말이 되었고 대승과 소승의 불법이 자비로운 구름처럼 서울을 덮게 되었다. 타방의 보살이 세상에 출현하고 서역의 이름난 승려들이 이 땅에 강림하니 이로 말미암아 삼한이 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한 집안을 만들었다. ~ 법흥왕이 이미 폐지된 불법을 일으켜 절을 세웠다. 절이 완성되자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승려의 옷을 입었으며 궁중의 친척을 절의 노비로 바치고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불법의 교화를 넓게 퍼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sup>34)</sup>

「원종홍법·염촉멸신」의 조목은 비교적 긴 이야기로 전개된다. 원종과 염촉의 기사 외에도 진홍왕의 이야기도 이어지고 왕비의 출가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다. 원종이 불법을 일으킨 것과 염촉이 멸신하여 조정신하들의 반대를 꺾은 내용이 주라고 할 수 있다. 이 홍법으로 말미암아 신라불교는 비로소 어떤 집이나 예불을 드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게 되고 누구나 불도를 행하면 반드시 불법을 깨닫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법이 흥해지니 삼한일통(三韓一統)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불법의 홍법이 세간의 이익과 통합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 하나 이 조목에는 법흥왕이 폐지된 불법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다. 신라에 불교가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고 신앙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였는데, 법흥왕의 홍법으로 폐지된 불법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그리고 출가하여 사찰의 주지가 되어 불법의 교화를 넓게 퍼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는 것은 홍법의 핵심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하겠다.

## 2) 법왕의 금살

“백제 29대 법왕은 이름은 선인데 효순이라고도 했다. 개황 19년 기미년(599)에 왕위에 올랐다. 이해 겨울 살생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려 일반 백성들이 기르는 새매나 매 따위들을 놓아주게 했으며 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도 불사르게 하여 일체의 살생을 금하게 하였다. 이듬해 경신년(600)에는 30명을 득도하게 하고, 당시의 사비성(부여)에 왕흥사를 세우려고 터를 닦기 시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무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에 절을 일으켜 수십 년이 지나서 완성했다. 그 절 이름을 또한 미륵사라고 했는데, 산을

34)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原宗興法厭觸滅身 條.

등지고 물가에 임하였으며 화초와 수목이 수려하니 사철의 아름다움을 다 갖추었다. 왕은 항상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절에 들어와 장엄하고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는 경치를 구경했다.”<sup>35)</sup>

법왕이 살생을 금했다는 사실을 일연은 「홍법」편에 두고 있다. 불법의 살생 금지를 세상의 생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홍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의 ‘원종홍법’에서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기사는 단 한 마디도 없다. 왕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한 사실만이 있다. 물론 일연은 찬으로 금살(禁殺)의 의미를 찬탄하고 있다. 법홍왕도 살생을 금하는 조서를 내렸지만 십재일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sup>36)</sup> 살생을 금하는 것이 일체 금수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일연은 찬탄한다.

“너그러운 명령으로 짐승 보호하니 그 은혜 천구에 미치고  
은혜로운 혜택이 돈어까지 흡족하니 어깊이 사해에 다다르네.  
덧없이 떠난 성군 말하지 마오.  
상계 도솔천에는 이제 바로 꽃다운 봄이라네.”<sup>37)</sup>

법왕 사후 60년 뒤 백제는 신라에 의하여 멸망한다. 일연은 현실에서 도솔천으로 법왕을 보내고 있는데 홍법의 의미가 인간계에서 짐승계로 또 현실 세계에서 도솔천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5)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法王禁殺 條.

36) 『三國遺事』 卷一 王曆第一, 法興王 條.

37)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法王禁殺 條.

### 3) 보장봉노 보덕이암

고구려의 보장왕이 노자를 받들자 보덕 화상이 기거하던 방장을 전주 고대산으로 날려 옮겨왔다는 기사이다. 기사에 의하면 불법이 흥성해지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흥법이 세간의 흥성과 직결되고 있음을 일언은 말하고 싶었다고 할 수 있다. 보덕 또한 임금에게 간하였으나 의견이 채택되지 못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고구려는 내분으로 망국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사를 축약하여 읽어 보도록 하자.

“고구려 말기 무덕 정관(618-649)에 나라 사람들이 앞다퉈 오두미교를 신봉하였다. 당 고조가 이를 듣고 도사에게 천존상을 가지고 가서 도덕경을 강의하게 했다. 왕과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니 바로 27대 영류왕이 왕위에 오른 지 7년 되는 무덕 7년 갑신년(624)이었다. 이듬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불교와 도교 배우기를 청하자 당나라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보장왕이 즉위하여 세 개의 교를 함께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신임을 받던 재상 개소문이 왕에게 ‘유교와 불교는 함께 융성하고 있으나 도교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청해야 한다’라고 설득하였다. 당시 반룡사에 머물고 있던 보덕 화상이 좌도인 도교가 정도인 불교에 맞서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여러 번 간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여 그만 신통력으로 그가 거처하던 암자를 날려 남쪽에 있는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겨 머물렀다. 영휘 원년 경술년(650) 6월이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라가 망하였다. 지금의 경북 사에 날아온 암자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진락공이 그를 위해 시를 지어 당에 남겨두었고, 문열공이 그의 전기를 써서 세상에 전했다.”<sup>38)</sup>

뒤이어 일연은 고구려와 구원(仇怨)이 있던 수나라 양제의 신하 양명(羊明)이 연개소문으로 다시 태어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기사도 전해 주고 있다. 여기서 세 종교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연의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국론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불법 이외는 '좌도'라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그렇다고 하겠다.

보장왕이 노자를 받들자 보덕 화상은 방장을 남쪽으로 옮겨 남쪽에 열반경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시에서 확인해준다.

### Ⅲ. 「홍법」편의 특징: 편제와 인식의 역사관

그렇다면 『삼국유사』 「홍법」편의 특징은 무엇일까. '유사(遺事)'와 '별이(別異)'를 남겨준 일연의 역사 인식은 사라져 가는 우리의 고대사를 확립하였고, 산일(散逸)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되돌려놓았다. 불법의 홍법을 왕력과 기이에 이어 시설하였고, 해당 조목을 여섯 조목을 삼국에 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일연은 각 기사의 호응(呼應)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들을 논박하며 찬과 시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논자는 『삼국유사』 「홍법」편의 특징을 편제와 인식의 측면에서 그의 역사관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삼국유사』 「홍법」편의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38) 『三國遺事』 卷二 興法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 條.

## 1. 편제의 측면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 편은 국왕과 일반 사회의 역사에 관한 것이고 흥법 이하의 편은 불교 관련이다. 『삼국유사』를 서술의 양상 측면에서 「기이」와 「餘他」 편으로<sup>39)</sup> 분류하기도 하는데, 「흥법」 편은 여타편의 서언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 들어와서 공인돼야 불법이 흥성하여 다른 문화를 양산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이」와 「餘他」 편의 대분류를 수용하면 「흥법」 편은 「여타」 편 of 서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진단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여타」 편이 대개 불교 관련 기사이고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연은 「흥법」 편 여섯 조목을<sup>40)</sup> 먼저 불교 수용과 공인에 관해서는 고구려·백제·신라의 해당 기사의 순서를 따라 편제하고, 불법의 흥성과 쇠퇴에 관한 기사는 신라·백제·고구려 관련 기사를 차례대로 배치하고 있다. 『삼국사기』 「본기」에는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서로 편제되었다. 그렇지만 일연은 ‘흥법’ 편에서 불교의 수용 사건을 다루면서 아마 그 수용 연대를 중심으로 하였음인지 고구려·백제·신라의 순서로 불교 수용 기사를 편제하고 있다.

「흥법」 편 여섯 조목은 다시 불교 초기 전래와 수용 기사의 전반 3조목과 불교의 전개 및 흥망 관련 3조목으로 나뉜다. ‘초기 전래와 수용(受容)’에 관한 내용은 삼국에 불교를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전해주었고, 불교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흥법」 편 전반부의 불

39) 金文泰, 앞의 논문, p.76.

40) ‘동경홍륜사 금당십성’ 조목을 흥법편으로 분류하여(고영섭(2014a), 6~7) 역해하고 있는 역본으로는 이민수 역, 이상호 역, 이범교 역 등이 있고, 최남선 역 등은 탑상편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논자는 의미 상 탑상편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교 수용에 관한 기사에도 고구려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진(前秦) 부건의 의도로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의 경우 전법승은 있으나 그것이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일연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마라난타가 동진 효무제의 보호 아래 바다를 건너 백제로 왔을 것이라는 전제를<sup>41)</sup>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항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백제불교의 수용은 고구려의 그것과 다른 차원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삼국의 불교 수용은 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의 정치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전래 되고 수용된 측면과 백제와 신라의 경우 전법승의 의지로 전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가 수용하는 자세는 극명하게 달리 나타난다. 백제는 임금이 불교를 강력히 원하여 수용하였으나<sup>42)</sup> 신라의 경우 왕이나 왕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앙하고 있었지만<sup>43)</sup> 왕 주변의 권력자들은 기성 신앙을 하고 있었으므로 불교 수용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연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홍법」편 후반 3조목은 불법의 전개와 홍망에 관한 기사인데, 일연은 여기에 홍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원종홍법 염촉멸신’, ‘법왕금살’, ‘보장봉노 보덕이암’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체가 임금이라는 사실이다. 불교를 일으키고, 살생을 금하고 노자(道敎)를 받들고 있는 주체는 임금이다. 임금이 불법을 일으키거나 다른 종교를 받들었다는 것이 홍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인데 일연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41) 이이화, 앞의 책, pp.46~47.

42) 김영태, 앞의 책, p.38.

43) 비처왕(479~499) 때 ‘梵修僧’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궁중에 내불당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동아시아불교가 철저하게 국가불교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임금 이외의 수행자도 불법을 흥성하게 한 이야기가 여타 편의 다른 기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편목에 편입되지 않았다. 임금이 중심이 되어 불법을 흥성하게 일으키니 백성이 비로소 공양을 올리고 이익을 얻는 신라와 불법을 일으키지 않고 도교를 받드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고구려를 대비시키고 있다. 물론 도교를 받드니 현자들이(보덕 화상) 나라를 떠나갔다. 또 살생을 금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 살생을 금하고 그 도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일연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왕력」편 범흥왕조에서 ‘십재일에 살생을 금하였다’고 하여 살생을 금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연은 「홍법」편을 편제하며 국가에 불교가 전래 되고 수용된 사실과 불법이 전개되고 홍법 여부에 따라 나라가 흥성하거나 망한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대비해 편제함으로써 불교의 초기 전래와 수용, 그리고 홍법이 국가의 흥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인식의 측면

「홍법」편 여섯 조목에는 일연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논평이 적지 않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기록된 사료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것의 시비를 밝히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록되어야 할 것들은 유사(遺事)로, 기이(紀異)하고 별이(別異)한 것을 정리하여 의미에 맞는 편목을 붙이고 내용을 서사(書寫)하였다. 그 가운데 삼국의 불교 초전 기사는 고구려와 같이 비교적 명료한 것은 문제가 될 게 적지만 신라의 경우 초전·재전·삼전·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일연은 보고 있다. 전해진 기사의 동이성(同異性), 그 앞에 선 일연의 붓은 불교를 하는 선사의 안목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 「홍법」편에 보이는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초전자와 그 관련 이야기, 불사(佛舍) 등에 대해 논의해 보자.

### 1) 초전자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이는 순도로 나온다. 372년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순도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아도가 왔다는 사실이다. 순도는 사신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도(阿道)는 순수 전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불교의 전래 기사 4종에는 ① 미추왕 때(263)의 고구려 승려 아도(我道), ② 눌지왕 때(417~458)의 묵호자(墨胡子), ③ 비처왕 때(479~499)의 아도화상(我道和尚), ④ 양나라 대통 원년(527)의 아도(阿道)가 그이다. 각각에 아도 혹은 묵호자가 전래자로 등장한다. 이를 다른 이로 보느냐, 동일인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일연은 아도가 묵호자라는 입장에서 눌지왕 때 아도가 신라로 왔다고 보고 있다. 또 일연은 4세기 중후반 관중 사람으로 신이한 행적을 많이 남기고 있는 담시(曇始)가 태원 말년(396)에 해동으로 왔다가 의희 초년(405)에 관중으로 돌아갔는데 국내 기록이 없지만 아도 묵호자 난타와 연대와 사적이 서로 같으므로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필시 그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일연은 아도 묵호자 난타가 담시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최치원이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sup>44)</sup>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도를 묵호자로 봐야 할 근거를

<sup>44)</sup> 이지관 역주, 앞의 책, p.298, 주 37)에는 담시 대사가 처음으로 貊의 지방(春川)에 와서 불교를 傳播하였다고 함.

찾을 수 없다는 견해도 여전히 상존한다.<sup>45)</sup> 하지만 일연의 초전자 추론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결코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2) 전래사

전래사(傳來事)가 혼재한 것은 ‘아도기라’조의 신라 관련 초전이다. 『삼국사기』와 「아도비」 기사 두 가지 설화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두 설화가 서로 달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일연은 시험 삼아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추왕 대이면 너무 빠르고, 비처왕 대이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도가 향을 피워놓고 기도하여 공주의 병을 낫게 한 이적은, 전래 흔히 외래 종교 초기 터전을 잡을 때 나타나는 종교적 영험의 한 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 두 기사의 내용이 판박이다. 일연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일단 사료를 다 제시하고 아도니, 목호자니 하는 것은 지목지사(指目之辭)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기실 다 같다고 일연은 보고 있다. ‘아도기라’조에서 볼 수 있는 전래사는 사실 기성 종교 세력 사이에서 알력을 극복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사건일 뿐일 수도 있다.

또 하나 전래사에는 고도령의 예언이 있는데 다섯 번째 사천미를 더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불교 초전의 역사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신라의 전불토설(前佛土說)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일연은 그렇게 보고 있다. 후반 「홍법」편의 ‘원종홍법 염촉멸신’에서 볼 수 있듯이 염촉의 멸신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왕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뜻을 굽히게 되어 불법을 흥하게 할 수 있었다는 인식을 일연은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해서 전래사의 동이는 일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도비에서 신

---

45) 고영섭, 『『三國遺事』 「興法」篇 ‘阿道基羅’條의 고찰』, pp.272-273.

라 불교 초전의 역사가 3천 개월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도 신라의 불교 흥성이 불려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역사에서 찾는 교훈을 증시한 일연의 역사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긴 자보다 진 자에게서 무엇인가 찾으려 했다. 기실 당대의 일연은 전쟁에서 진 나라의 승려였다. 바로 고려와 몽고의 전쟁을 말한다. 전쟁은 그의 나이 20대에서 시작하여 40대 초까지 이어 졌는데 전쟁을 피해 다니며,辛苦(辛苦)하게 살아간 그로서는 진 쪽이 가 저야 할 각성은 뼈저렸다.<sup>46)</sup> 전쟁의 교훈을 일연은 역사 기술에 적용하였다. 이것이 『삼국유사』 「홍법」편에 담긴 일연의 복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3) 불사(佛舍)

고구려에서는 불법을 전래한 순도를 위해 성문사를 짓고, 곧이어 도래한 아도를 위해 이불란사를 지었다. 성문사(省門寺)는 각훈이 지적한 대로 초문사(肖門寺)로 와전된 것이<sup>47)</sup> 적의하다고 할 수 있다. 왜인가. 사찰을 짓고 승려를 머물게 하였다는 것은, 그곳에 승려, 곧 사문(沙門, 桑門, 省門)이 머물게 하는 작은 관공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훈의 지적을 일연은 애써 외면하고 『삼국사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 아도를 머물게 한 ‘이불란사’에 대해 그동안 이에 대한 해석은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이불란사는 유랑하는 전법 승려 아도를 위해서 건립한 것이라면 이불란사(伊佛蘭寺)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불란사의 이불란은 산스크리트 vibhram(위브람)으로 추정된다.

46)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pp.16~17.

47) 覺訓 撰, 『海東高僧傳』(T50, p.1016a17).

위브람은 ‘wander through roam over fly about drive asunder to move about’ 등으로 ‘돌아다니다, 뿔뿔이 다니다 등’이라고 설명된다.<sup>48)</sup> 이곳에 거주하게 된 아도의 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연이 추정하듯이 아도가 답시라고 하면 더욱 타당한 추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도를 답시로 추정한 일연의 학문적 상상력이 조금은 덜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연은 각훈이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지금의 흥국사와 흥복사라고 하는 데 대해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구려의 도읍(안시성)과 지금의 도읍(개경)이 다른데 무슨 소리냐면서 말이다. 그렇다. 일연의 신경질은 일편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지금의 흥국사와 흥복사라는 언표는 지금의 흥국사와 흥복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국가불교 시대의 불사는 당연히 나라의 흥성과 나라 임금의 복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승려가 머무르는 사찰은 흥국사 흥복사라고 비유적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고구려에서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짓고 승려가 그곳에 거주하며 나라와 임금의 흥성과 복 빌기를 바랐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명칭이 무엇이었던가 간에 그와 같은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신라 최초의 사찰을 흥륜사라고 한 것은, 불법을 퍼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므로 불교의 전파에 초점이 주어지는 명칭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고구려의 경우는 나라의 흥성과 왕권의 공고가 중심이므로 당연히 ‘흥국’과 ‘흥복’이라는 기능이 불사(佛舍)에 주어졌을 것이다.

---

48)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인석 선생의 검색과 조연

결국 일연은 「홍법」편의 편제와 ‘논’이라는 인식을 통해 홍법의 의미, 곧 홍법이 나라의 흥성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법은 불교의 수용과 그것을 일으킴으로써 불교의 흥성과 민족의 흥성으로 이어졌으며,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삼국유사』 「홍법」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결어: 불교 흥망의 요인

『삼국유사』는 준 역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에 불교문화 관련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고 해서 ‘불교문화사료’로 보는 것은 『삼국유사』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삼국유사』는 문자 그대로 유사(遺事)이고 별이(別異)한 것을 교정한 준 역사서로 기전체를 바탕으로 한 기사본말체에 가깝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삼국유사』 「홍법」편의 특징은 불교의 흥성과 쇠퇴는 나라의 흥망의 요인이라는 편제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가 전래 되고 수용된 것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였다고 일연은 분명하게 그 구조와 인식에서 밝히고 있다. 고구려의 불교 공인도 그렇고 백제 또한 불교의 수용이 상당히 수월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신라의 경우 법흥왕의 사신(捨身)으로 홍법하고 엄축의 멸신(滅身)이라는 희생에 의지하여 비로소 신라에 불교가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이때부터 신라에는 어떤 집이나 예불을 드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게 되고 누구나 불도를 행하면 반드시 불법을 깨쳐 깨닫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일연은 「홍법」편을 편제하며 국가에 불교가 전래 되고 수용된 사실과

불법이 전개되고 홍법 여부에 따라 나라가 흥성하거나 망한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대비해 편제함으로써 불교의 초기 전래와 수용, 그리고 홍법이 국가의 흥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연은 「홍법」편의 편제와 ‘논’이라는 인식을 통해 홍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홍법은 불교의 수용과 그것을 일으킴으로써 불교의 흥성과 민족의 흥성으로 이어졌으며,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이 『삼국유사』 「홍법」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T50)

김영태, 『한국불교사』(서울: 경서원, 1986/1997).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사 고증세편』(서울: 조계종출판사, 2004).

이이화,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사』(서울: 불광출판사, 2018).

이지관 역주,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서울: 가산문고, 1993/1994).

일연·이상호 역,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서울: 까치글방, 1999/2004).

고영섭, 「삼국유사의 불교철학적 접근」, 『한국문화연구』 4집(서울: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고영섭, 「『삼국유사』 「홍법」과 「탐상」의 성격과 특징」,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5(경주: 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a)

- 고영섭, 「『三國遺事』 「興法」篇 ‘阿道基羅’條의 고찰」,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5(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b).
-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高翊晉, 「三國遺事 撰述攷」, 『한국찬술불서의 연구』(서울: 민족사, 1987).
- 金東旭, 「三國遺事 解題」, 『韓國의名著』(서울: 玄岩社, 1969).
- 金杜珍, 「一然의 心存禪觀사상과 그 불교사적 위치」, 『韓國學論叢』(서울: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3).
- 金文泰, 「三國遺事の 體裁와 性格」, 『陶南學報』 11(도남학회, 1989).
- 김문경, 「三國遺事に 나타난 신라의 佛敎信仰結社」, 『史學志』 10(한국사학회, 1976).
- 金相永, 「一然의 著述과 佛敎思想」(『佛敎史研究』 2(김포: 중앙승가대학교, 1998).
- 金相鉉, 「三國遺事に 나타난 一然의 佛敎史觀」, 『韓國史研究』 20(한국사학회, 1976).
- 김상현, 「一然의 佛敎思想」, 『녹원스님 고회기념 학술논총 - 한국불교의 좌표』(서울: 불교시대사, 1997).
- 金煥泰, 「三國遺事の 體裁와 그 性格」, 『동국대학교논문집』 13(서울: 동국대학교, 1974).
- 閔泳圭, 「三國遺事」, 『韓國의 古典百選』, 『신동아』 1월호 별책부록(서울: 동아일보사, 1969).
- 閔泳奎, 「一然의 禪佛敎」, 『震檀學報』 36(진단학회, 1973).
- 배금란, 「논평문: 신라불교의 초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장대웅/역사애호가)」, 『2021년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 한국불교학회, 2021).
- 蘇在英, 「三國遺事に 비친 一然의 說話意識」, 『崇田語文學』 3(서울: 송전대국어국문학회, 1974).
- 안계현, 「三國遺事와 佛敎宗派」(『三國遺事の 新研究』(서울: 서경문화사, 1991).
- 李基白,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意義」, 『韓國의 歷史認識』 上(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6).

李乙煥, 「三國遺事に 나타난 일연의 언어 의식」, 『東洋學』 5(서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李載浩, 「三國遺事 解題」, 『三國遺事』(서울: 養賢閣, 1982).

蔡尙植, 「一然(1206~1289)의 사상적 경향」(『韓國文化研究』 창간호(부산: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崔南善, 「三國遺事解題」, 『啟明』 18(1941),

최남선, 『新訂三國遺事』(1927).

최남선, 「三國遺事解題」, 『新訂三國遺事』(서울: 민중서관, 1946/1971).

##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eungbeop in *Samgukyusa*

Lee, Sung-woon /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It may be misunderstanding of *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that it is categorized as ‘the cultural history of Buddhism’ because it contains many stories related to Buddhist culture. It can be said to be an event-oriented history based on a comprehensive narrative that includes different and overlooked historical stories.

The six articles in the Heungbeop (Rise of Buddhism) section are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Buddhism and the prosperity of national fortune and were organized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prosperity of Buddhism leads to that of the world. Although Ilyeon didn't make a direct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and its acceptance, which is for political purposes, he made it clear in its structure and understanding. Buddhism was easily approved officially in both Goguryeo and Baekje. However, Buddhism had not risen and spread widely in Silla until King Beopheung dedicated himself and Park, Yeom-chok sacrificed himself. Since then in

Silla, Yebul (禮佛, worship of the buddhas) would be guaranteed to be hono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any household and anyone who practices Buddhism must gain the benefit of enlightenment of the Buddha-dharma.

It clearly shows from the title of each section and its explanation that if Buddhism flourishes it will bring benefit to the people, but if not, a country will perish and that excessive Buddhism's prosperity or belief can lead possibly ruin the country. This can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 of the Heungbeop section.

**Key words :** *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llyeon, Heungbeop (Rise of Buddhism), *Samguk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Records of Great Wonders, the official approval of Buddhism, the difference (別異)

원고접수: 2023-05-30

심사완료: 2023-06-21

게재확정: 2023-06-23